

위기를 생각하는 또

하나의 방법

글. 송주호
방송과기술 편집장

은 세계가 위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의해 일상마저 파괴되었고, 난데없이 메뚜기와 나방들이 식량을 갉아먹고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기상 이변으로 유럽은 가뭄으로 시달리고 아시아는 물 폭탄을 맞고 있으며, 환태평양의 불의 고리에서는 쉬지 않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방송도 20년 동안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다변화된 미디어가 시청자의 UX로 정착하면서 기존의 방송사들의 부가가치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사들은 사실 방송사라고 하기가 민망할 지경입니다. 기획사이기도 하고 제작사이기도 하며, 판매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IT 기업이기도 하고, 출판사이기도 하며, 학원이기도 하죠. 사업의 다각화는 좋은데 인원은 그대로이다 보니, ‘일당백’이라는 표현이 요즘 자주 들리곤 합니다. 2002 한일 월드컵 때에 우리 선수들이 미드필더로 뛰다가 공격에 가담하기도 하고, 수비를 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멀티플레이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새로운 세기의 인재상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전문성 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상 효율 저하라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요즘엔 멀티플레이어라는 말은 구시대적 실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송사에서는 여전히 일당백으로 뛰어야 하는 현실이죠. 어쩌면 이것이 방송사의 진짜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요즘, 독일의 철학자인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 : 1859~1938)을 생각하게 됩니다. 후설은 ‘현상학’이라는 학문의 창시자죠. ‘현상학’(Phänomenologie)이란, 간단히 말하면 존재의 본질을 묻는 철학입니다. 보통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어디서 태어나 어디서 자랐고 무슨 학교를 나왔으며 무엇을 전공했고 어디서 일했으며 지금은 무엇을 하는지에 관해 이야기하곤 하죠. 하지만 이것은 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 발생한 관계에 의해 형성된 외부의 관점에서의 객관적인 모습일 뿐이죠. 그래서 후설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에 대해 ‘판단 중지’하고 모두 ‘괄호’에 넣음으로써, 대상의 본질을 찾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근본에 접근하고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방송도 현상학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 우리가 생각하는 콘텐츠, 우리에게 익숙한 미디어, 이들에 대한 기존의 판단은 모두 편견으로 각인된 자연적인 관념일 뿐입니다.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괄호에 넣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방송이란 무엇일까요? 방송은 왜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인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어떠한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까요? 어떠한 내용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까요? 어떠한 미디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금전적인 순환이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더 근본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만들어봅시다. 저는 이 질문과 그 답에 방송이 나아갈 방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새로운 시대의 인류의 삶도 그러합니다.

방송과기술 편집부



방송과기술 편집장
송주호



OBS 김영광



아리랑국제방송 안재선



SBS 강동민



TBS 이봉근



MBC 박두경



EBS 김준환



KBS 조원현



BBS 박진용



YTN 이한배



KT스카이라이프 김희동



CBS 김준규



기자 이진범

방송과기술

BROADCASTING & TECHNOLOGY
Vol.296 2020. 8

발행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07995)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0층

Tel. 02-3219-5635~42 / Fax. 02-2647-6813

www.kobeta.com / E-mail. kobeta@naver.com

발행인 변철호 **편집인** 기정모 진신우 김종기
김정용 신동훈 한성주 최충환 손근선 심영우
김은식 박치규 김효신 객재호 천대성 장해완
안의섭 강태구 김동현 김창원 김경태 박진수
고종국 김성찬 황인규 박태형 **편집장** 송주호
편집위원 조원현 박두경 강동민 김준환 김준규
박진용 이봉근 안재선 김희동 이한배 김영광

편집·취재기자 이진범 **편집디자인·인쇄** P3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0길 9 유삼빌딩 3층

Tel.02-3141-2760 / Fax.02-3141-5569

회원사 KBS MBC SBS EBS CBS
YTN kt skylife arirang BBS
KFORCE MEDIA TBS OBS X TBN MBN TBC
CJB KNN kbc G1 JIBS TTB JT TV
WBC NATV WDS MBN

구독 신청

- 방송과기술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한 후 전화 혹은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 과월호 구입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6개월 5만원 / 1년간 9만원 / 2년간 17만원
- 계좌 : 신한은행 100-030-515021
(주)월간 방송과기술 (예금주)
- Tel.3219-5635 / Fax.2647-6813

월간 방송과기술 구독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안내문 발송
- 과월호 방송과기술 PDF 열람 가능
- KOBA(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
무료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KOBA 국제 방송기술 컨퍼런스 등록 시 할인 적용
(구독 권수에 한정)
- 기타 본 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원고 기고 및 광고 문의

- Tel.02-3219-5642 (사무국)
- E-mail. jnb1001@nate.com

월간 방송과기술 홈페이지

tech.kobeta.com